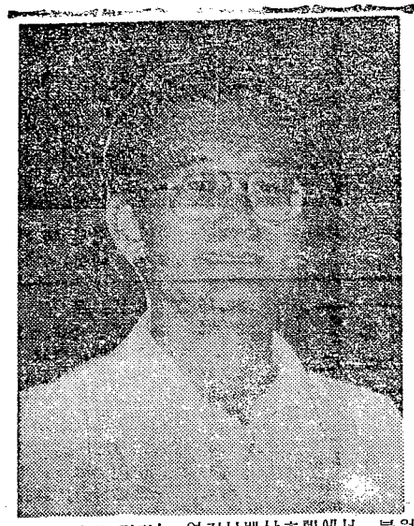
•전국발행• 제533호
1988년 8월 30일 화요일
(음력 무진년 7월 19일)
길림성신문등록증2호발행번호 11—13
사장 겸 주필 리송영

길림신문

(吉林朝鮮文报)



수일전 기자는 연길시백산호텔에서 불원천리 해양건너 일본에서 중일관계사 제6차학술토론회에 참가하러 온 히다 유이찌선생을 만나뵈였다.

히다 유이찌선생은 일본 고베시의 고베학생청년센터의 재별단 법인이며 《무궁화회》의 대표인이였다.

무궁화회—일본 고베시에서 순 일본인들로 무어진 민간그루빠를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꽃으로 이름지은 그 자체가 희귀한 일이였다.

《히다 유이찌입니다.》

자기의 명함을 넘겨주면서 하는 자아소개가 짱짱한 조선말이였다.

• 인터뷰 •

일본땅의 《무궁화》

본사기자 리선근

금년에 37세되는 선생은 례절스럽고 솔직하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서로의 인사가 끝난후 기자는 화제를 본의로 돌렸다.

《무궁화회는 어느때 어떻게 되여 나온 그루빠인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무궁화회는 1971년 1월에 조직되였습니다. 저도 이 그루빠의 창시자의 한사람이였지요.》

《그때 선생은 한창 열혈청년이였겠군요.》

《예, 그때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무궁화는 조선민족의 저항정신을 반영하는 아름답고 굳센 꽃입니다. 일본에서의 조선사람들에 대한 차별관념을 없애는것을 사명으로 한 우리는 이 아름답고 굳센 꽃으로 우리 그루빠를 이름지었습니다.》

선생의 소개에 의하면 일본에는 민족차별시와 민족기시가 심했다. 무궁화회는 설립된이래 조선민족에 대한 일본인들의 리해를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그들은 이미 무궁화회의 기관지인 《무궁화통신》(격월간) 109기를 출판하여 조선의 경제, 력사, 문화, 교육, 풍속습관을 광범한 일본인들에게 소개하여주었으며 자비로 《조선근대사회경제사》, 《조세걸소설집》, 《무궁화애창곡집》(일어와 조선어를 한데 넣어), 《중국의 조선족—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등 많은 서적들을 출판하였다.

그외 그들은 재일조선동포와 부분적 일본인 유지인사들이 한데 모이는 집회, 년차회의 등도 조직하였다.

무궁화회의 성원들은 달마다 자기들 로임에서 얼마씩 떼내여 그루빠의 경비로 쓰며 직업을 갖고있는 정황하에서 책의 편집과 조직활동 등은 모두 과외시간에 진행한다. 그들은 매주 이틀밤(저녁 6시—9시)의 활동이 있는데 화요일밤엔 활동 혹은 집회, 토론회 등을 조직하고 수요일밤엔 전문 조선어를 학습한다.

그외 그들은 성원마다가 제각기 부동한 연구제마를 가지고 론문을 준비하고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론문집으로 묶어 출판할 예정이였다.

경쟁이 치렬하고 시간이 금싸락같이 귀중하고 급전만능인 일본사회에서 그들은 과외시간을 허비하고 경비를 자부담하다보니 무궁화회를 꾸려가는데 곤난이 적지 않았다

이 화제에 언급되자 히다 유이찌선생은 이렇게 유쾌한 대답을 주었다.

《우리 무궁화회성원들은 단합되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곤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고픈 일을 우리들자신의 힘으로 해나가는것으로 하여 더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두시간남짓이 서로 조선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자는 일본국 고베시에서 피여난 《무궁화》가 전 일본땅에 그 고움과 향기를 뽐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히다 유이찌선생과 작별의 뜨거운 손을 잡았다.

자녀에게 남을 위하는 봉양하는 방법

최 금 혁

(자녀 교양)

우선 걸음마를 할 때부터 의식적으로 어린애를 시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이상분들에게 물건을 가져다 올리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게 하는 첫시작이라 하겠다.

어린애가 일정한 독립행동력을 갖추면 힘에 알맞는 가무일을 시키는것이 좋다. 이를테면 어린애가 3, 4살되면 어른들이 구들을 쓸 때 쓰레받기를 가져오게 하며 빨래질을 할 때 비누곽을 가져오게 하며 밥상을 놓을 때 밥이나 채를 나르게 하고 수저를 배렬시키는것 등이다.

어린애가 좀 더 커감에 따라 먹은 그릇들을 부시게 하거나 뜨락을 쓸게 하면서 가무일은 가정성원이 모두 분담해야 한다는 도리를 깨우쳐주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 또는 학교에 붙게 되면 학습을 잘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착실하게 리행하도록하는외에 남을 돕고 집체를 위해 일을 찾아하도록 고무하여줘야 한다.

다음으로 일상가정생활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이상분들을 관심하고 도와주도록 교육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이상분들이 피곤해하면 시끄러움을 끼치지 않게 하며 휴식을 잘하게 조건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

또한 놀이감이나 학용품을 남한테 빌려주거나 같이 놀고 쓰게 하는것이 좋다. 특히 자기보다 나어린 어린이를 사랑하고 관심하게 하며 로인들을 존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나어린 어린이가 엎어지면 일귀세워주게 하고 차간에서 로인에게 자리를 양보해드리면 칭찬해주어야 한다

음주습관과 영양결핍증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경상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데 만약 이렇게 시간이 오래게 되면 영양결핍증에 걸린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이 식생활이 고르지 못하거나 식욕이 약해진다. 술을 많이 마시면 위의 활동기능이 약해지고 메스꺼워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 지방, 당분 등 주요 영양소결핍이 생길수 있다. 전문가의 통계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중 약 4분의 1이 위축성위염에 걸려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위산과 위단백효소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낮아지기때문에 단백질의 소화률도 낮아진다. 실험에 의하면 작은뱀점막이 0.5~3%알콜과 접촉하면 아미노산과 포도당의 흡수에 억제를 받는다. 장기적으로 술을 마시면 작은뱀의 비타민B1, 비타민 B12, 비타민M 등 비타민에 대한 흡수기능도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신경성질병, 설염, 및 백혈구세포감소증 등 증세가 나타날수 있다.

이밖에 인체에 필수되는 칼시움, 마그네시움, 아연 등 물질결핍도 올수 있다.

총적으로 경상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면 음식맛을 잃게 되고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장애가 생겨 체중이 내려가고 비타민과 무기염의 결핍으로 하여 대사장애가 생기면서 인체에 주는 알콜독성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상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을봉)

알림

고혈압치료치약을 사려는분들은 우리 신문사에 련계하지 말고 직접 吉林市空军医学专科学校训练部政工科李毅에게 련계하기 바랍니다.

편집부